

반도체 부족에...국내 자동차 생산 13년만에 최소

올 3분기 76만1975대

지난해 동기 대비 20.9% 감소

신차 출시 지연·공장 가동 중단

중 전력난 겹쳐 생산 차질 지속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가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덩달아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충이 깊어질 전망이다.

어릴 전망이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는 총 76만1975대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92만1583대에 비해 20.9% 감소한 것으로, 3분기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2008년 76만121대 이후 13년만에 최소치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총 35만209대를 생산해 작년 같은 기간(41만5992대)에 비해 15.8% 줄었고, 기아는 32만1734대를 생산해 작년(34만4212대)보다 6.5% 감소했다.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일찌감치 감산에 들어간 한국GM은 3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10만2747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5939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한국GM은 지난달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을 생산하는 부평 1·2공장의 가동률을 모두 절반으로 줄이는 등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부평1공장을 2주간 휴업했다.

반면 반도체 수급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르노삼성차는 작년 3분기(3만1537대)에 비해 오히려 7.0% 증가한 3만3760대를 생산했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의 경우 2만499대를 생산하는 데 그쳐 작년(2만6164대)보다 21.7%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1·2분기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잘 버텼으나, 올 하반기 동남아시아 지역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자동차 생산량이 80만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9·10월이던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밀집한 동남아 국가

들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육다운' (봉쇄)에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쳐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업체가 출시한 신차 출고 지연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은 출고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신타페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기아 역시 인기 모델인 카니발의 경우 6개월 정도 출고가 늦어지고,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최장 11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하반기 출시될 제네시스의 G90과 기아의 니로 신형 출시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북미 IDEA'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2021 북미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핀스레드(Fin-Spread) 타이어를 컨셉(사진)으로 출품해 본상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

1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IDEA(미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금호타이어가 출품한 Fin-Spread 타이어는 디자인 혁신성(제품의 참신성, 문제해결력), 사용자 혜택(제품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 여부),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브랜드에 대한 이점(디자인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주는 혜택(설계 및 제조 과정의 지속가능성), 적절한 미학(디자인의 용도-기능 적합성) 등 5가지 평가기준을 충족했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자동차에 맞는 주행성능을 위해 고무와 공기를 통해 차량을 지지하는 기존 개념을 탈피, 에어리스(Air-less)를 기반으로 새로운 타이어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를 통해 안전성, 안락성, 소음 등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성능을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Fin-sread 타이어의 1개 트레드 유닛은 고객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고래가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지만 유연한 지느러미를 이용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을 적용시켰으며, S자형으로 디자인한 트레드는 마찰을 최소화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1 월드랠리챔피언십 대회에서 현대차 'i20 Coupe WRC' 랠리카가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 세계 모터스포츠 3개 대회 석권

내연기관·전기차 동시 최정상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월드랠리챔피언십(WRC)과 월드투어링카컵(WTCR), 퓨어 ETCR(PURE ETCR)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현대차는 지난 14~17일 스페인 타라고나 주에서 열린 2021 WRC 11차 대회에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과 다니 소르도 선수가 'i20 쿠페 WRC' 랠리카로 각각 1, 3위에 올라 더블 포디움(한 팀 두 선수가 3위 내 수상)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승을 차지한 티에리 누빌은 전체 17개의 스테이지 중 10개의 스테이지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면서 2위인 도요타팀의 에반스 선수를 24.1초 차이로 제쳤다.

이로써 현대차는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WRC 통산 20승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프랑스 포 아르노스 서킷에서 펼쳐진 2021 WTCR 6차 대회의 두 번의 결

승 레이스 중에서 두 번째 레이스의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N TCR로 출전한 영슬러 현대 N 리퀴몰리 레이싱팀 소속 잔 칼 버네이 선수는 도합 144점을 받아 드라이버 부문 2위에 올랐다.

또한 현대차는 전기 투어링카 레이스 퓨어 ETCR에서도 '벨로스터 N ETCR'로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WTCR에서 우승한 잔 칼 버네이는 퓨어 ETCR에서도 총 72점을 얻어 우승했으며, 같은 팀의 아우구스토 파푸스 선수는 68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 주말 펼쳐진 3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게 되는 WRC도 철저히 준비해 현대차의 우수한 친환경 기술을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기아, 핀다·하나은행과 금융상품 개발 현대자동차기아가 핀테크 기업 핀다(FINDA)와 하나은행과 손잡고 커넥티드 카 데이터를 활용한 특화 금융상품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와 핀다, 하나은행은 최근 비대면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통해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기반 금융상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TaaS본부 정현택 상무, 핀다 박홍민·이혜민 공동대표, 하나은행 디지털 리테일그룹 김소정 부회장. <현대자동차 제공>

지난달 자동차 수출 20% 이상 급감

반도체 부족에 추석 연휴 겹쳐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대수는 15만1689대로, 작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35억6000만달러로, 6.1% 줄었다.

반도체 수급 차질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지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처음으로 수출액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단가가 높은 친환경 차량 수출 비중이 늘면서 수출대수에 비해 수출액 감소폭은 작았다. 생

산도 줄어 지난달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월 동기 대비 33.1% 감소한 22만9423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공장이 휴업 또는 감산 운영에 들어간 데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 자체도 줄어서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출고 적체로 이어지면서 내수 판매 역시 29.7% 줄어든 11만3천932대를 기록했다. 최근 잇달아 출시된 신차의 판매 호조에도 이 같은 출고 적체로 국산차 판매대수가 33.8% 감소했고, 독일계와 미국계 차량의 판매 감소로 수입차 판매대수도 7% 줄어들었다.

수입차 판매가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수출대수(3만4823대)와 수출금액(10억4000만 달러)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1.3%, 46.8% 증가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2021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첫 협력사 채용박람회로, 채용 상담 등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운영까지 재정적 지원을 전담한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오트모터 등 8개 그룹사 총 280개 협력사가 참가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